

## 美 2026.1월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반응

### 1. 고용지표 내용\*

\* 당초 2.6(금) 발표 예정이었으나 美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에 따라 오늘로 연기

- 1월 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Non-farm Payrolls)는 전월대비 13.0만명 증가 [Bloomberg 시장예상치 +6.5만명]
  -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17.2만명 증가[예상 +6.8만명]하였으며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4.2만명 감소
    - 세부 업종별로는 운송·창고(-1.1만명)를 제외하고 교육·의료(+13.7만명), 전문기업서비스(+3.4만명), 건설(+3.3만명)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지난 12월 및 11월 취업자수는 1.7만명 하향조정(12월 -0.2만명, 11월 -1.5만명)
- 경제활동참가율(62.4% → 62.5%)[예상 62.4%]은 전월에 비해 상승하고 실업률(4.4% → 4.3%)[예상 4.4%]은 하락
  - 가계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38.7만명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취업자수\*는 52.8만명 증가하였으며 실업자수는 14.1만명 감소
    - \* 기업조사 기준 조정치(농림업 및 자영업 제외, 다중취업 추가)는 전월대비 69.0만명 증가
  - U-6 실업률\*은 8.0%로 전월(8.4%)에 비해 하락
    - \* 최근 4주간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제적 이유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를 실업자로 간주
-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대비(0.1% → 0.4%)[예상 0.3%]로는 확대되었으나, 전년동월대비(3.7% → 3.7%)[예상 3.7%]는 전월과 동일
  - 주당 평균노동시간(34.2시간 → 34.3시간)[예상 34.2시간]은 전월에 비해 증가

주요 부문별 非농업 취업자수 증감

	(만명)			
	25.11월	12월	26.1월	3개월 평균
非농업 전체	4.1	4.8	13.0	7.3
-민간부문	7.2	6.4	17.2	10.3
(건설)	3.6	-0.4	3.3	2.2
(제조)	-1.0	-0.8	0.5	-0.4
(도·소매)	-0.7	-4.0	0.1	-1.6
(운수·창고)	-5.9	-0.1	-1.1	-2.4
(전문·기업서비스)	5.6	1.5	3.4	3.5
(교육·의료)	5.6	5.3	13.7	8.2
(여가·음식숙박)	-1.2	4.5	0.1	1.1
-정부부문	-3.1	-1.6	-4.2	-3.0

실업률 및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



작성자 : 김대석 과장

## 2. 금융시장 반응

- 시장에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예상치 큰 폭 상회\*, 실업률 하락\*\*,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임금상승률(전월대비) 확대 등 세부내용이 모두 견조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일부 투자은행은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시장예상치의 2배(13만명 vs 6.5만명<sup>e</sup>)에 달하고 3개월 평균기준으로 7.3만명으로 작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이 안정화 단계를 넘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Wells Fargo)

\*\* 실업률은 반올림 제외시 4.283%까지 하락하며 작년 여름(8월)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지 않았다면 하락폭이 더 커졌을 것(Morgan Stanley)

- 취업자수는 운송·창고(-0.1만명 → -1.1만명)를 제외하고 교육·의료<sup>\*</sup>(+5.3만명 → +13.7만명), 전문기업서비스(+1.5만명 → +3.4만명) 등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건설(-0.4만명 → +3.3만명), 제조(-0.8만명 → +0.5만명) 등은 상승 전환

\*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폭이 교육·의료부문에 크게 치우쳤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JP Morgan, Barclays)

- 최근 AI 확산으로 인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 상승 우려가 증대되었으나, 전문기업서비스부문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20~24세 연령대 실업률이 고점 대비 2%p 하락(9.2% → 7.1%)하는 등 AI로 인한 고용악화 우려는 다소 완화

- 가계조사에서 실업률이 하락하며 작년 8월 수준까지 회복\*

\* ('25.8월) 4.3% → ('9월) 4.4% → ('10월) 미발표 → ('11월) 4.5% → ('12월) 4.4% → ('26.1월) 4.3%

- 대부분 투자은행은 금일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로 인해 연준이 당분간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일부는 추가 금리인하 시점을 연기\*

\* Citi는 기존 3월, 6월, 9월 → 4월, 7월, 9월로, TD는 기존 3월, 6월, 9월 → 6월, 9월, 12월로 인하 시점을 연기(매 회의 25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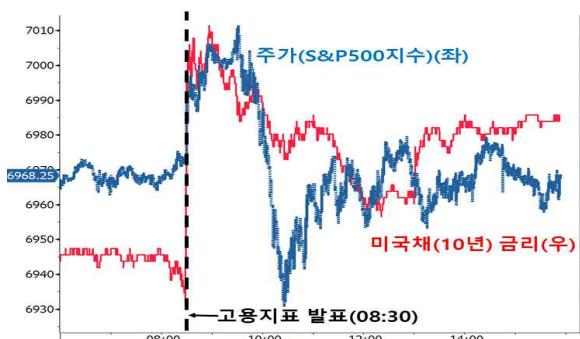
- 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준의 상반기내 금리인하 기대(전일 105.3% → 72.6%)는 크게 축소되었으며, 연내 인하폭 기대(전일 60bp → 53bp)도 축소

- 고용지표 발표(8:30am) 직후 견조한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 및 주가는 상승하고 미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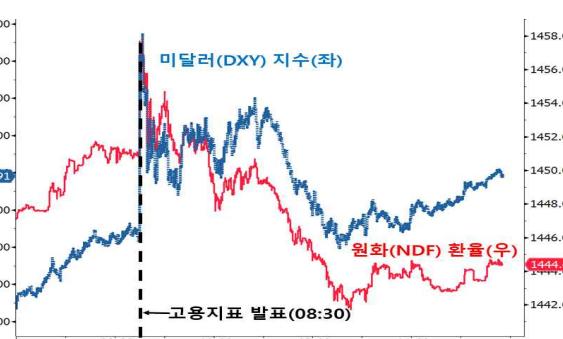
금리 및 주가는 미-이란 지정학적 긴장 고조<sup>\*</sup>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고, 미달러화는 日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따른 엔화 강세 등으로 강세폭을 축소

\* 美 국방부는 협상 결렬 등 이란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두 번째 항공모함의 중동 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언(WSJ)

미국채 금리(10y) 및 주가(S&P 500 지수)



미달러화(DXY) 및 원화(NDF)



자료 : Bloomberg

## <주요 투자은행 등 코멘트>

- **(Bank of America)** 금일 고용보고서는 취업자수 증가폭 예상치 큰 폭 상회, 실업률 하락,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노동시간 증가 등 모든 부문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임. 기업조사 연간조정 하향폭이 당사 전망보다 컸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임. 만약 향후 실업률이 추가로 하락한다면 월러 이사 전망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종결될 수 있음을 의미
- **(Morgan Stanley)** 전반적으로 매우 견조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는 매파적인 고용보고서였음. 1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상치에 2배에 달했으며 이전과 달리 직적 2개월 하향조정폭도 경미하였음. 실업률(U3)·광의실업률(U6)도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전월대비 임금상승률도 확대되었음. 경제참여율이 상승하지 않았더라면 실업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을 것
- **(JP Morgan)** 모든 부문에서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였음. 실업률은 반올림 제외시 4.283%까지 하락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도 감소하고 실업기간도 단축되는 등 노동시장이 안정세를 넘어 개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음. 다만 민간부문 취업자수 증가폭이 교육·의료(+13.7만명)부문에 크게 치우쳤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
- **(Goldman Sachs)** 하셋, 나바로 등 최근 백악관 인사들의 고용시장의 부정적 신호를 암시하는 발언이 무색할 만큼 금일 고용지표는 강력한 데이터였음. 연준의 3월 인하 가능성은 명백히 사라졌으며 금요일에 발표되는 CPI 지표마저 매파적인 시각을 강화시킬 경우 미국채의 강한 매도세가 나타날 가능성
- **(Wells Fargo)** 취업자수 증가폭(3개월 평균 기준)이 작년 2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회복되고 실업률도 추가 하락하면서 작년 여름과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하였음. 연간 조정에서 큰 폭의 하향 조정은 이미 작년 QCEW 데이터 발표시 예견된 결과라서 서프라이즈 요소는 아니었음. 금일 고용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고무적이었음
- **(Barclays)** 취업자수 증가폭(3개월 평균 기준)이 7.3만명까지 회복되며 명백한 개선 흐름을 보였음. 실업률도 4.3% 미만으로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다시 견조해졌음을 나타내는 신호임. 한편 경제성장 측면에서 노동시간은 늘고 임금은 상승함에 따라 근로소득 증가세가 소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다만 고용 증가가 특정 부문(교육·의료)에 솔리고 여타 부문은 미약한 회복 내지 정체에 그쳤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
- **(Deutsche Bank)** 금일 고용보고서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사라지게 할 만큼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였음. 최근 AI 확산에 따른 청년 실업률 증가 우려가 있었지만, 해당 연령대의 실업률이 고점대비 2%p 하락하며 긍정적인 반전 신호를 주었음
- **(WSJ)** 연간조정으로 작년 고용 증가분이 하향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에게는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질 것. 시간제 일자리의 감소, 6개월 이상 실업자 감소 등 노동시장이 질적으로도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 금일 고용 데이터는 연준의 금리 동결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

<참고>

### 기업 및 가계조사 연간조정

- (기업조사) 2025.3월말 분기 고용임금 센서스(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를 반영하여 원계열은 2024.4월 데이터부터, 계절조정계열은 2021.1월부터 수정  
○ 이에 따라 2025년중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증가폭(계절조정)은 총 40.3만명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중 12월 및 11월은 각각 0.2만명, 1.5만명 하향

#### 연간조정에 따른 2025년 월별 비농업부문 취업자수(계절조정) 변동

(천명)

2025년	비농업부문 취업자수			전월대비 증감		
	수정후(A)	수정전(B)	차이(A-B)	수정후(A)	수정전(B)	차이(A-B)
1월	158,268	159,053	-785	-48	111	-159
2월	158,310	159,155	-845	42	102	-60
3월	158,377	159,275	-898	67	120	-53
4월	158,485	159,433	-948	108	158	-50
5월	158,498	159,452	-954	13	19	-6
6월	158,478	159,439	-961	-20	-13	-7
7월	158,542	159,511	-969	64	72	-8
8월	158,472	159,485	-1,013	-70	-26	-44
9월	158,548	159,593	-1,045	76	108	-32
10월	158,408	159,420	-1,012	-140	-173	33
11월	158,449	159,476	-1,027	41	56	-15
12월p	158,497	159,526	-1,029	48	50	-2
계				181	584	-403

- (가계조사) Census Bureau의 추정인구 수정치를 매년 1월 수치\*에 반영해 왔으나, 올해는 다음달 2월 수치 발표시부터 인구조정이 적용될 예정  
\* 이에 따라 직전년 12월과 금년 1월 수치간 시계열 단절이 발생  
○ 오늘 발표된 1월 수치도 다음달 인구조정 반영시 함께 수정될 예정